

사회의학				번호: III - C - 1	
제 목	국문	요양시점에 따른 재해노동자의 재활 필요도 변화			
	영문	Changes of the need for injured workers' rehabilitation according to care proces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임 준, 최은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문	Jun Yim, Eun-Hee Choi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사회의학	발 표 자	임준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 목적</p> <p>매년 3만 여명의 노동자가 사망 또는 장애인이 되고 있고, 노동력 상실이 큰 장애등급 1~7급자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산재 장애인 중 비율이 1996년 10.7%에서 99년 12.6%로 증가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인적자원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원직장복귀를 포함한 재활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기재원에 의한 문제와 인적 자본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적절한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내용의 포괄화와 함께 적절한 서비스 제공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를 통하여 요양시점에 따라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요구도가 변하는지를 분석하여 서비스제공의 적절한 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산재노동자의 재활서비스의 요구도는 크게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산재 후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 중인 산재노동자와 치료가 종결되어 장애 판정을 받은 산재노동자 중 39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치료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는 입원과 통원 환자를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는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되었다. 의료재활의 객관적인 요구도를 평가하기 위해 통증에 따른 장애정도를 평가하는 도구인 Oswestry Pain Disabilit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고, 직업재활의 요구도는 작업수행능력을 계량화하여 평가하였다. 통계기법은 다변량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p> <p>3. 연구 결과</p> <p>응답자의 39.8%가 현재 처치, 검사, 투약 등 급성치료를 받고 있었고, 7.5%가 단순요양, 10.8%가 재입원 상태, 19.3%가 통원치료 중이었다. 치료 종결된 상태인 응답자는 22.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재로 인해 손상된 신체 부위로는 허리가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 생산기능직, 생산조립직, 단순노무직, 농업직 등에서 허리 부위의 손상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에서 팔, 어깨 등의 손상 부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p> <p>의료재활서비스의 요구도를 요양시점별로 보면 재입원 상태에 있는 응답자가 통증에 의한 장애 정</p>					

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통을 호소하는 산재 노동자가 통증에 의한 장애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서비스의 요구도를 보면 현재 재입원 상태에 있는 산재노동자가 작업수행능력을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치료 종결된 상태에 있는 응답자일수록 현 상태에서의 기존 작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요통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가 작업수행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요구도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요양 중인 응답자가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사고 시점이 일정 기간을 지나 통원치료를 하거나 치료 종결된 상태에 있게 될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4. 고찰

산재노동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상해종류, 그리고 요양시점 등에 따라 재활서비스의 요구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요통을 호소한 산재노동자에서 의료재활서비스의 요구도가 클 뿐 아니라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점에 따라 분류해보면 재입원 상태에 있는 산재노동자의 경우 직업재활서비스보다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활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는 산재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며, 특히 효과적인 재활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요양부터 직업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